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중로 라00049

현대건설 사우 여러분,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 Love You



현대건설 임직원의 든든한 서포터즈!
총무실 서수연 대리
인사실 이정현 대리
의무실 권영애 사원
통신실 주명석 사원
(왼쪽부터).

Hyundai E&C has kept its nose to the grindstone throughout 2017. This year, full of both regrets and good memories, is nearing to an end. We wish you all a happy holiday season when you can share your appreciation

and love with those around you. To celebrate the year-end, Hyundai E&C Today interviewed four employees. We would like to send our gratitude for their unwavering support.

Continued on page 5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온 2017년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보람찬 순간도 많았습니다.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 사랑하는 이에게는 마음을 표현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사보신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임직원을 서포트하고 있는 네 명의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있어 올해도 참 평안했습니다.

관련 기사 5면

Special Thanks to “현대건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준 분들, 여러분이 있어 올해도 행복했습니다.”

“36년을 현대건설과 함께했어요”

최한옥 / 사옥미화(FM텍)



1981년 세종로 사옥 막내로 입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만언기가 됐다며 환하게 웃는 최한옥님은 현대건설이 1983년 계동 사옥으로 입주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산증인이다. 40년 가까이 본관과 별관을 오가며 근무했기 때문에 사무 공간은 물론 로비와 엘리베이터, 계단까지 그녀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을 찾지 못할 정도. 현대건설 임직원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온 그녀는 이제는 현대건설이 내 집 같고, 임직원은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사우들이 먼저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난다는 그녀. 현대건설을 향한 애사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든든한 한 끼로 힘이 되고 싶습니다!”

조영식 / 조리실장(현대그린푸드)



요리 인생 25년. 양식을 전공했지만 호텔과 현대차 양재 사옥 등을 거치며 이제는 한식 조리 경력이 더 오래 됐다는 조영식 조리실장은 현대건설 계동 사옥의 식사를 책임진 지 올해로 2년차다. 그의 요리 철학은 오직 하나.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조리하는 것이다. 맛도 맛있지만 신선한 재료, 고른 영양까지 신경 쓸 부분이 꽤 많다고. 게다가 불 맛을 살려 조리를 하고, 새로운 메뉴를 고안하는 등 시장 조사나 트렌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최근 오픈한 누들 코너의 반응이 좋으며 미소 짓는 그는 그래도 현대건설인의 사랑을 받는 메뉴는 변함없이 육류라고 귀띔한다. 자부심을 가질 법한 요리 장인이지만 사장님도 애용하시는 만큼 전 임직원이 만족하는 식단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깨끗한 사옥 관리가 우리의 보람이죠!”

주용진 / 외곽미화(성광S&C)



겨울이면 빙판과 폭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지만 회사 주변은 빠르게 제설 작업이 이뤄져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다. 바로 묵은일을 마다 않는 사옥관리인들 덕분이다.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되는 청소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사옥 주변과 짐나지움, 원서공원은 물론 인근 도로까지. 관리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나나는 질문에 계동 사옥에 근무한 지 1년을 조금 넘겼다는 주용진님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친다. 현대건설 직원들이 사옥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처우나 대기실도 배려를 많이 해주 동료들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다만 원서공원의 경우 주민들이 내다 버린 생활쓰레기로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고객 서비스를 위해 매일 교육도 받는다는 그는, 최상의 근무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보람이라고 밝혔다.

“안심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오병록 / 보안 부팀장(HDS)



검은 양복과 무전기, 흐트러짐 없는 헤어 스타일까지. 사옥에 들어서면 랜스레 사원증 착용을 한 번 더 살피게 되는 것은 로비에 있는 보안요원들 때문이다. 항상 긴장 상태로 근무하다 보니 아무래도 직원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으며 의외의 환한 미소를 보여준 오병록 부팀장은 계동 사옥 근무 9년차 베테랑이다. 내 방객 응대부터 출입관리, 보안, 민원인 대응, VIP 의전, 미팅룸 관리까지 업무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50여 명의 동료들은 주차정산소부터 5층 미팅룸까지 사옥 곳곳에 포진해 있다고. 겨울이면 후문 담당자들이 가장 고생을 한다며 후배까지 살뜰히 챙기는 그는 보안 절차에 불편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회사의 정보 자산은 물론 임직원의 물리적 자산까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이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Hyundai E&C delivers warmth to those in need

Hyundai E&C and HDA donate part of their salaries

Hyundai E&C and Hyundai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s (HDA) visited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located in Jeong-dong, Seoul, on December 14 to donate the "Love-sharing Fund" valued at about 334 million won. The donation was collected voluntarily by a total of 2,477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Hyundai E&C and HDA through the current year. It will be used for public service projects at home and abroad to support for the public health and livelihood in Bangladesh, provide local facilities in Indonesia, establish schools in Vietnam, smarten up the center area of

Seoul and help recover from disasters. Our company has staged the "Love-sharing Fund" campaign since 2010, and the accumulated donation amount has reached approximately 2.43 billion won.

"Hyundai E&C will not only spread the donation culture at a corporate level, but also work on various activities around the world to help the underprivileged by increasing CSR activities and play a leading role in educational improve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said an official of Hyundai E&C.

Meanwhile, our company is actively



conducting education-related projects in the global stage to help people living in underdeveloped areas stand on their own feet in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Friend

Asia and Food for the Hungry by building IT classrooms and libraries in Teheran of Iran and constructing a job training center in the Rodriguez area of the Philippines.

현대건설, 임직원 모금으로 따뜻한 온기 전하다

현대건설·현대종합설계 임직원 2400여 명 급여 끝전 모아 성금 전달

우리 회사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회사와 현대종합설계는 지난 12월 14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기금' 3억34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서울 중구 정동 소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우리 회사 임직원 노조위원장, 추창수 총무팀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회사와 현대종합설계 임직원 총 2477명이 1년간 모금한 이번 성금은 ▶방글라데시 보건·생계 지원 ▶인도네시아 H-Contech 파견 지역 주민 편의시설 지원 ▶베트남 학교 건립 지원 ▶중로 도시미관 개선사업 ▶재해·재난 지원사업 등 국내외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사랑나눔

기금' 캠페인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금된 누적액은 약 24억3000만원에 이른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급여 끝전이 큰 금액이 되어 지구촌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사내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늘려

소외계층을 돕고 교육 개선과 환경보존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최근 국제개발 NGO인 '프렌드아시아' '기아대책' 등과 함께 이란 테헤란시 IT교실과 도서관, 필리핀 지역의 직업훈련센터 건립하는 등 낙후 지역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글로벌 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룹사 뉴스

현대차그룹, 3년 연속 '美 굿디자인'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유력한 디자인상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6개의 수상작을 배출했다. 제네시스 G80 스포츠-콘셉트카 GV80, 현대차 쏘나타 뉴 라이즈, 기아차 스텔리아-리오 등 총 6개 차종이 2017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운송 디자인 자동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네시스는 브랜드를 출범한 첫해인 2015년 EQ900(현 지명 G90)이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데 이어 올해 G80 스포츠와 수소연료전지 SUV 콘셉트카 GV80이 수상하며 3년 연속 벤츠·페라리 등 세계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현대차는 쏘나타 뉴 라이즈(현지명 2018 쏘나타)가 수상 명단에 올랐다. 기아차는 스텔리아와 리오 등 주요 양산 모델 3종이 뛰어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아 동시에 수상하는 경이사를 맞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제네시스를 비롯해 현대·기아차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차량 디자인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브랜드만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품질과 상품성을 더욱 높여 전 세계 고객에게 더 나은 만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현대엔지니어링이 12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일자리창출지원 단체(민간기업)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일자리창출 공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유일하다. 건설경기 위축 우려로 건설업계 채용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매년 170여 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직원 수는 올해 3월 기준 5770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1.8% 늘어났다. 회사는 2015년도도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과 취약계층 채용 확대, 근로시간 개선 등 다방면에서 시행된 일자리 창출 노력의 성과"라고 말했다.

'제1회 대한민국 건설상' 종합대상 수상

우리 회사가 12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건설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건설상'은 혁신적인 신기술과 경영활동을 통해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사를 격려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대건설은 해외 건설의 선두주자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기술 및 경영 혁신이 뛰어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첫 번째 종합대상 수상자로 뽑혔다"고 밝혔다.



'제1회 대한민국 건설상' 시상식.

한편 우리 회사는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일경제·MBN 주최 '제13회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에서도 토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우리 회사는 세계 최초로 '사장-현수교' 복합 방식의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를 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룹 주관 '2017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 대상 수상

우리 회사가 현대차그룹이 주관하는 '2017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은 그룹 내 우수혁신 사례를 발굴해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의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조직 부문에서 연구개발본부의 '교량 시공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공법이 대상, 개인 부문에서는 연구개발본부 서태석 과장이 '현대건설의 미래를 위한 자기개발과 기술역량 강화'로 인제중상을 받았다.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서 우리 회사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그룹 내 29개 계열사에서 조직 부문 96건, 개인 부문 107건의 사례가 응모된 가운데 조직 부문에서 12건, 개인 부문 6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교량 시공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은 기존 분할·반복 시공하던 교각을 일괄 시공해 공기를 단축하고 작업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협력사 해외공사 진출 지원 교육 실시

우리 회사가 12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협력사 해외공사 진출 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외주협력사 53개사에서 총 69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협력사의 미진출 해외 지역에 대한 시공 경험을 공유해 해외공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협력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별 심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호응이 높았다. 사내 강사 8명이 ▶해외 시스템



소개 ▶해외 세무 및 회계 ▶수출입 통관 절차 ▶인력 동원 및 노무관리 ▶해외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가치 오픈 클래스' 열어

우리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12월 12일 계동 본사 대강당에서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가치 오픈 클래스'를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주제로 90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 최 교수는 "다른 회사에는 없는데 우리 회사에만 있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진정한 1류"라며, "1류가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창의력을 통한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류의 삶을 살기 위한 실



천 방법으로 독서를 통한 지식 수련을 강조하며 평소 책을 자주 접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해 총 여섯 차례의 '핵심가치 오픈 클래스'를 진행해 임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양을 쌓고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동탄 2차' 분양

우리 회사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동탄 2차'를 2018년 1월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38층, 4개 동, 총 679세대(아파트·오피스텔)로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4㎡ 443세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2㎡(140실), 42㎡(96실)의 236실과 판매시설로 구성했다.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동탄테크노밸리 핵심 입지에 위치한 배후 주거지에 들어서 직장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전 기구가 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반경 500m 거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600m 거리에는 치동초등학교가 있다. 인근에는 이마트 동탄점, 코스트코 공세점, CGV동탄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갖췄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SRT와 GTX A노선(예정) 등 우수한 서울 접근성으로 30~40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2018년 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에 들어선다. 입주는 2021년 1월 예정.

Kansong exhibit brings paintings to life with the help of technology

Nov 27

A gisaeng, or female courtesan, and seonbi, a Joseon-era scholar, are embracing each other by a stone wall under the moonlight. A misty haze veils them for a while, but the moonlight soon reveals the two lovers' secret encounter. Another woman, who is visibly blushing and leaning against the other corner of the wall, sneaks a look at the couple. This is the scene from the renowned genre painting "A Secret Meeting in the Moonlight," included in the 30-leaf "Album of Genre Paintings" by Sin Yun-bok (born 1758), also known by his pen name Hyewon, one of the great artists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e genre paintings in this album, National Treasure No. 135, which depict the everyday life of the ordinary citizens of Hanyang (Seoul's former name) during his time are like stills from a movie, said Tak Hyun-gyu, a researcher from the Kansong Art Museum. Then why not turn them into moving images so that Korea's old paintings can be appreciated by younger audiences?

That's what the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did.

Titled "Drawn by the Wind," the foundation and the Seoul Design



5



1 Media artist Lee Lee-nam's new projection media inspired by Gyeongnam Jeong Seon's painting of "Danbalryeong Mangeumgang." 2 Gyeongnam's "Geumgang Naesan" depicting the 12,000 peaks of Mount Geumgang. 3, 4, 5 Hyewon Sin Yun-bok's genre painting of "Dancing Together with Two Swords," has been reimagined as a five-minute video image. Its costume has also been recreated as hanbok.

Foundation kicked off a joint exhibition on Nov. 24 at the Design Museum inside the Dongdaemun Design Plaza in central Seoul, showcasing not only original paintings from Korea's two most influential and pioneering artists of the time - Hyewon and Jeong Seon (1676-1759), also known by his pen name Gyeongnam - but also media artworks inspired by the two masters' works. The exhibition runs until May 24.

All 30 paintings inside the "Album of Genre Paintings" are exhibited along with Gyeongnam's 12 paintings inside the "Album Transmitting the Spirit of the Sea and Peaks," as well as 26 paintings of

Mount Geumgang. Next to the cultural assets are 17 media art works produced by Brand Architects, which allow visitors to enjoy some of the exhibited works in animated 2-D images. "We wanted to break that stereotype people have that antique paintings are stale," said Shin Do-seong from the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Celebrated media artist Lee Lee-nam also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through two media art works inspired by Gyeongnam's paintings of Mount Geumgang. This six-minute projection media work fills the thick fog depicted in Gyeongnam's painting with fantastical video imag-

es showing high rises, cable cars and construction sites.

Those who want to enjoy the original copies of the master's albums should visit the exhibition at least three times over the course of six months, suggests Tak from the Kansong Museum. "All 30 paintings from the 'Album of Genre Paintings' will be exhibited, but only 12 of them at a time will be original copies. Every month, the original paintings will alternate so that all 30 paintings will be displayed at least once during the exhibition, just not all at once," Tak explained. The schedule is listed inside the exhibition. *By KOREA JOONGANG DAILY*

Gov't invests 204 billion won in nuclear energy R&D

Dec 19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investing 203.6 billion won (\$187.2 million)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nuclear energy sector, with a special focus on enhancing the safety of nuclear plant operations and securing the technology required to decommission nuclear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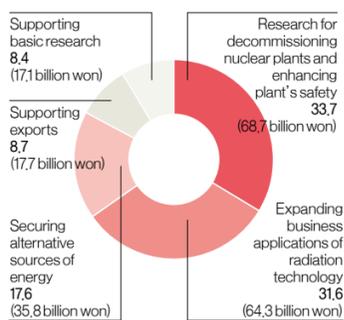
According to the Science Ministry, about one-third of the 203.6 billion won budget will be spent on enhancing the safety of existing nuclear plants, such as upgrading facilities to be more disaster-

proof, as well as securing core technologies required for plant decommissioning. It plans to cooperate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96 core technologies for nuclear plant decommissioning by 2021.

The ministry also hopes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in various sectors such as medical and biotechnology. To bolster research, the government will designate the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as a research-centric hospital for the effective

Nuclear R&D plans

Unit: %, Sour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in the medical sciences. Other industries where the technology could be applied include aerospace, national defense and the environment, the Scienc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e investment will also be used to beef up exports of nuclear energy-related technologies. Based on past experience in ex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nuclear reactors, the government is in talks with overseas markets to export Korean nuclear fuel, incident response robots and more.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2018 Hyundai Kona Breaks the Mold for Compact SUVs



Hyundai unveiled the U.S.-production version of its convention-shattering Kona crossover at the Los Angeles Auto Show. Kona rides on an all-new CUV platform and is Hyundai's first B-segment cross-

over for the U.S. market, appealing to consumers with active lifestyles of all kinds. Kona's "urban smart armor" exterior styling features voluminous, aggressive body styling complemented by a low and wide stance for great looks and confident handling in a variety of urban and adventure-oriented driving environments. It joins Hyundai's successful Tucson, Santa Fe and Santa Fe Sport in a full line-up of Hyundai crossovers for the U.S. market. 2018 Kona models will be available at Hyundai dealers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Genesis G90 Declared Most Loved Luxury Car in Strategic Vision



In the U.S., the Genesis G90 was named the Most Loved Luxury Car of 2017 in Strategic Vision's annual New Vehicle Experience Study (NVES). The Genesis brand finished second among luxury makes -

most of them long-established industry icons. The annual study surveyed more than 34,000 new vehicle owners after 90 days of ownership on topics that included performance, luxury and value. The award is based on the Customer Love Index (CLI), derived from the NVES. "G90 owners love most everything about the vehicle itself, ranging from the interior roominess and seating comfort to sound system performance and overall riding comfort," said Alex Hare, Vice President, Market Research, Strategic Vision.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How long has it been?
이게 얼마 만이에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meets his frie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at the gathering today. He wants to express his happiness and greet him appropriately. At this point, he can say "이게 얼마 만이에요?"

Dialogue

마이클 필립 씨, 정말 반가워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Phillip 씨, jeongmal ban-gawoyo.
Ige eolma mani-eyo?
필립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Geureogeyo jeongmal oraenmani-eyo.
Michael Phillip, I'm glad to see you.
How long has it been?
Phillip I agree, it's been a long time.

One more expression

Usually you can say "이게 얼마 만이에요?" to greet a person you haven't seen for a long time. However, you can use this structure for a thing you haven't done for a long time, too, such as "이게 얼마 만의 여행(외식, 외출, 영화 등)이에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traveled? (have eaten out, gone out, seen a movie.))

Intermediate



I need to pay close attention
신경 좀 써야겠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is giving a presentation today at a meeting. However, he made some mistakes with Korean expressions, so he wants to say that he will spend more time preparing for next time. At this point, he can say "신경 좀 써야겠어요."

Dialogue

마이클 다음부터는 회의에서 발표할 때 한국어 표현에 신경 좀 써야겠어요.
da-eumbuteoneun hoe-ui eseo balpyohal ttae hangugeo pyohyeoneo sin-gyeong jom sseyoyagesseoyo.
수미 그래도 오늘 사장님 앞에서 떨지 않고 잘하셨습니다.
Geuraedo oneul sajangnim apeseo tteoljido anko jal hasyeosseoyo.
Michael I need to pay careful attention to Korean expressions when I have a presentation next time.
Su-mi But you did a very good job without looking nervous in front of our CEO today.

One more expression

If somebody is too careful about details, you can tell them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Please don't worry about the small details.)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지진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시기는 지났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경주 지진과 최근의 포항 지진의 여파로 많은 이가 건축물 및 시설물의 내진 설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내진 기술과 내진 설계된 작품들을 살펴보자. 글=김보나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6
2017/12/22/Friday

지진을 피하는 방법, 내진 기술의 모든 것



1 터키 보스포루스 제3교에는 초고강도 케이블로 내진-내풍 기술을 구현했다. 2 NH통합IT센터에 적용된 면진 기술. 고무 기둥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한다. 3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했다. 4, 5 대만의 타이베이101에 적용된 제진 기술. 커다란 추가 건물 고층 내부에 자리해 지진 발생 시 진동을 억제한다. 6 NH통합IT센터 비상구는 땅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 계단과 난간을 끊어놓았다. 7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기존 건물에 X자 브레이싱으로 보강한 외벽.

지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지난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나라가 큰 충격에 빠졌다.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우리나라는 연평균 30회의 지진 발생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 20여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연간 지진 발생 빈도는 점점 낮아지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꽤 큰 규모의 지진 횟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강도 높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내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전체 건축물의 총 20% 남짓이다. 과거 내진 설계 여부는 층수를 기준으로 했기에 낮은 건물의 학교 등은 대부분 지진에 취약하다. 현재 국내 내진 설계 기준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제정한 것으로 31종의 시설별로 모두 달리 적용된다. 건축물의 경우 기존의 3층 높이 건물에서 2층 높이 건물로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 것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부터다. 교량은 규모 5.1~6.2의 재현 주기 1000년의 지진까지 대비해 내진 설계가 시행 중이다.

지진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보통 '규모'를 언급한다. 지진의 크기는 규모와 진동으로 나타내는데, 규모는 지진이 최

초로 발생한 지구 내부의 지점, 즉 진원에서 방출된 지진에너지의 절대량을 뜻한다. 리히터 1~9 사이의 실수로 표기한다. 진도는 지표면의 사람이 느낀 정도와 구조물 피해를 계급화한 것이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를 사용해 로마자로 I(1)~XII(12)의 정수로 표기한다.

지진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들

지진의 피해를 줄이거나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및 충격을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기술들은 각 건물의 환경이나 층수·용도·구조·비용 등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다.

내진은 충격을 통제하기보다 건축물 자체를 튼튼하게 지어 피해나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더 굵은 철근을 사용하고 벽과 바닥을 두껍게 만들고 건물 외벽에 특수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내진설계는 금이 가거나 일정 수준 이상 파손되면 철거가 필요하고 내부 시설이나 전기·가스·수도까지 보호하기가 힘들다.

면진은 충격을 흘러 보내거나 완화시켜 내부 시설까지 보호할 수 있다. 건축물과 땅을 분리해 그 사이에 고무 패드 같은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면진의 단점은 시공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지반과 건축물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선 및 배관 설계가 어렵다. 그

래서 주로 교량·철도·댐·데이터센터 등 특수 구조물에 쓰인다. 제진 설계는 건물로 유입되는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 진동을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건물과 진동주기가 같은 무거운 물체를 건물에 매달고 진동이 발생하면 진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를 움직여 흔들림을 억제하는 것이다. 제진 설비는 설치 비용이 매우 높고 발생 시기를 알 수 없는 지진에 대비해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유지 보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점점 진화하는 현대건설의 지진 대비 기술력

우리 회사는 터키 보스포루스 3교 등의 장대교량과 원전 구조물, 데이터센터 등 고도의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에 지진 대비 공법을 적용해 왔다. 2015년에 준공한 초장대교량, 울산대교는 거센 바닷바람과 지진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교량의 상판, 즉 보강거더다. 비틀림 등에 우수하고 유선형 단면으로 항력을 덜 받는다. 여기에 보강거더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강도 케이블을 사용했다.

2016년 완공한 NH통합IT센터에는 무려 규모 8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면진 기술이 적용됐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서버와 각종 통신 및 저장 장비를 보

내진 설계가 적용된 현대건설의 대표 건축물

시설물 분류	구조물	국내 설계 기준
교량	보스포루스 제3교 (규모 7.1)	5.1~6.2
	울산대교 (규모 6.2)	
건축	NH통합IT센터 (규모 8.0)	6.0~6.5
	GBC(예정) (진도 IX)	
원전	반포 주공단지 (예정) (진도 VIII)	6.5~7.0
	신한울 1·2호기 (규모 7.0)	

호하기 위해서다. 바닥에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구 계단과 난간은 곳곳이 끊어져 있도록 분리했다. 별도의 공간에는 지진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는 고무 기둥 '댐퍼(damper)'가 69개나 설치돼 있다. 이 댐퍼는 지진 발생 시 좌우로 최대 30cm 정도 움직이며 진동을 흡수한다. 우리 회사는 2001년 국내 최초로 면진 테이블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지진 대비가 그 어느 건축물보다 중요한 건물은 원자력 발전소다. 원전은 일반 건물과 달리 부지 조사 단계부터 내진 설계를 고려해 짓는다. 우리 회사가 시공

한 신한울 1·2호기는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다. 일반 건물 대비 더욱 두꺼운 내진 벽과 철근을 사용하고,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X자 형태의 브레이싱으로 보강했다. 이 밖에도 우리 회사는 강한 하중과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의 구조부재 개발 및 검증에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 예정인 GBC 또한 진도 IX, 규모 7.0~7.3 수준의 지진에 안전하도록 시공할 예정이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제도도 재정비되고 있다. 국내 시설별로 다른 내진 설계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내진설계 기준 공통적용 사항'이 올해 제정됐다.

이에 맞춰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기능수행·즉시복구·장기복구/인명보호·붕괴방지) ▶설계 지진 분류체계(시설물 사용연한 및 일정 기간 내 지진 발생 확률) ▶내진등급 분류체계(내진 특·I·II등급) 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내진 설계 기준은 2018년 말까지 개정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최근의 이슈와 관련법의 개정에 힘입어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회사의 내진 기술 연구 및 기술 개발 성과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포항 지진 지역에서 빛난 현대건설의 기술력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약 5.4의 지진으로 포항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회사는 피해 현장의 교량과 도로 안전 진단에 힘을 보태기 위해 11월 27일 인프라환경사업본부와 연구개발본부 및 포항 인근 현장 직원을 포항에 파견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12월 8일까지 포항시 직원들과 피해 지역의 교량 및 지반 탐사 활동을 실시했다. 점검을 마친 12월 중순, 교량 외관 조사 결과와 GPR 탐사 결과 일부를 포항시에 중간보고했으며 1월 중순에 교량 보수 및 보강 방법과 내하력 평가 등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11월 27일~12월 8일까지

조사 내용

교량 안전점검(18개), 교량 정밀안전진단(3개), 도로 공동 및 함몰 GPR 탐사(홍해읍 관내 도로 14.8km, 영일만산업도로 18km)

항목	포항시 협의	현장 조사	포항시 중간보고	포항시 최종보고
교량 안전점검 (18개소)	11월 27일	11월 27~28일	12월 19일	2018년 1월 17일
교량 정밀안전진단 (3개소)	11월 27일	12월 4~8일		
도로 공동 및 함몰 탐사 (홍해읍 관내 도로 14.8km, 영일만산업도로 18km 2개소)	11월 27~29일	11월 27~30일		

※중간 보고 교량 외관 조사 결과 및 홍해읍 관내 도로 GPR 탐사 분석 결과

※최종 보고 교량 보수 및 보강 방법, 교량 내하력 평가, 영일만산업도로 18km GPR 분석 결과

조사 결과

1 교량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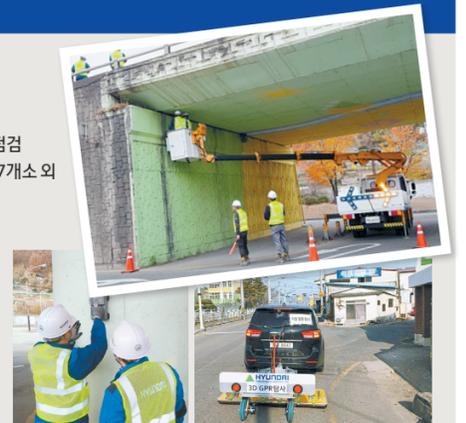
-상부구조·하부구조·신축이음·받침장치·성토사면 등 점검
-교대 용벽 파손 2개소, 신축이음 교체 7개소, 받침 교체 157개소 외 보수 항목 발견

2 도로 공동 및 함몰 GPR 탐사

홍해읍 관내도로 14.8km에 대한 GPR 탐사 결과, 6개소 의심 위치 발견 및 정밀조사 제안

향후 계획

-포항시와 점검 결과 파손부 보수 및 보강 방안 협의
-교대배면 사면부 보수 및 보강방안 관련 제3기관 실시설계 제안
-영일만산업도로 18km에 대한 GPR 탐사 분석 결과 제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사보신문>에서는 우리 회사 임직원이 회사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사우들을 만났다. “현대건설 임직원의 팬”이라고 자처하는 사우들의 4인4색 인터뷰.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6
2017/12/22/Friday

현대건설 사우들의 서포터즈

“우리는 임직원의 빅 팬(Big Fan)입니다!”



의무실 권영애 사원, 총무실 서수연 대리, 통신실 주명석 사원, 인사실 이정현 대리(왼쪽부터)가 밝은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Q 각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서수연 대리(이하 '서') 총무팀 소속으로 학자금, 장기근속메달, 복지포인트(물), 구내식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자녀와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이지요.

주명석 사원(이하 '주') 통신실담게 메인 업무는 전화예요. 사무실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현장에서 본사로 복귀할 때 개인 내선번호가 필요하잖아요. 이처럼 전화 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이 제 일이지요. 이외에도 비즈폰(BizPhone), 무전기, 현장 통신, 법인 휴대전화, 키폰 등 통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정현 대리(이하 '이') 인사실에서 임직원, PJT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급, 부서 이동, 자격증, 자녀 수당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검토한 후 급여가 개개인의 통장으로 무사히 입금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권영애 사원(이하 '권') 의무실에 온 임직원의 건강을 살피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 임

무예요. 종합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지요.

Q '현대건설 사우들의 서포터즈'라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서 서포터즈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팬, 지지자'라는 뜻이더라고요. 덕분에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사우들을 지지해주고 있는지, 팬으로서 응원해주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고 생각해요. 임직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아마 지원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라면 서 대리님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올 초 다녀온 핵심가치 팀 세미나에서 저희 팀의 일을 "산소!"라고 정의 내렸어요. 평소엔 자각하며 살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내부 고객인 임직원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Q 우리 회사 임직원이라면 매달 25일을 가장 기다릴 텐데요. 이정현 대리에게는 가장 긴장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이 급여일의 열흘 전부터 관련 데이터

를 받는데, 이 기간에는 휴가 일정도 안 잡아요. 결혼 날짜도 월초로 잡았었죠(웃음). 신입사원으로 이 일을 처음 했을 때는 너무 긴장돼서 급여일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출근해서는 '혹여 에러라도 나지 않았을까' 일일이 확인해봤죠. 사실 지금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서 이정현 대리는 25일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 같더라고요.

이 맞아요. 급여일에는 전화에 메신저까지 빚발쳐요. 이 일을 하면서 생긴 좌우명이 "정확하고, 매끄럽게!"예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이가 납득할 수 있게끔 일을 하고 싶은 바람이지요.

Q 직원 복지 담당자인 서수연 대리 역시 업무로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서 연초에는 복지포인트, 분기마다 학자금, 월별로 장기근속메달 등을 처리해요. 문의 전화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3월, 학자금이 나가는 4·6·9·12월이에요. 그때는 임직원 아내 분의 전화도 많이 받죠.

주 임직원의 가족에게 전화 받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서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녀요.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웃음).

Q 권영애 사원은 우리 회사 유일의 간호사예요. 의무실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일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권 한 직원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다며 의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가슴 두근거림과 숨 가쁨 증세가 있다는 거죠. 상태가 심하게 보였지만 그분은 업무가 바빠 당장은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을 투자해 설득한 결과 병원에 가셨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셨죠.

이 정말 큰일 날 뻔 했네요.

권 저에게 고맙다며 인사해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보람도 느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더 생기게 됐어요. 저를 찾아오는 직원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야겠다고 다짐했죠.

Q 주명석 사원이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주 계동 본사를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전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가서 아내가 옷을 가져다 줄 정도로 바빴고, 밤도 많이 새웠거든요. 사육을 옮긴 후 통신이 안정화된 다음에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냈구나 라는 생각에 무척이나 뿌듯 했어요.

서 비즈폰 도입할 때도 수고가 많았잖아요.

주 제 임무는 회사 교환기와 비즈폰 앱을 호환시켜 직원 간 무료 통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도 고생한 만큼 보람을 많이 느꼈죠.

Q 2017년을 한 단어로 정의 내려주세요.

주 아쉬움! 비즈폰에 대한 본사 직원들의 반응이 크지 않아 아쉬워요. 해외 현장에서는 애용되고 있고, 국내 현장 직원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권 도약!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1년6개월 차예요. 지난해에는 적응하기 바빴고, 올해야 현대건설의 멤버로서 근무했던 것 같아요.

이 안정! 급여 업무는 크게 튀는 일 없이 평안하게 일이 진행돼야 해요. 올해 큰 문제없이 일이 진행된 것 같아 참 다행이었죠.

서 버라이어티! 총무팀은 급작스럽게 생기는 일이 많아요. 올해에도 갑자기 생긴 중요한 일들을 많이 처리한 것 같네요. 또 우리 회사가 '반포대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잖아요. 그 과정이 참 버라이어티하고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웃음).

Q 마지막으로, 사우들에게 한마디.

서 사우들에게 무엇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며 전심전력(全心全力)하겠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시다 아주 가끔은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있는 저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관련 문의가 있을 때는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여러분이 통신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사우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금연하세요(웃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2017년. 올해는 '창립 70주년' '수주' '사회공헌' '상생' '윤리경영' 등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다. 2017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든 순간들을 시기별로 정리했다. 글·정리=이희정



공정거래 위반 예방교육 APR

This year, our company put our top priority on ethical management and encouraged our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and all interested parties to actively implement related policies.

올 최대 경영 화두는 '윤리경영'. 우리 회사는 '윤리경영'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우리 회

In April, Hyundai E&C provided an education program designed to prevent offences against fair trading and an online ethical management program for its subcontractors.

사는 4월 18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300개 협력사를 위한 '온라인 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하수슬러지 분야 국내 최초 기술검증 획득 JUL

Hyundai E&C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n R&D this year. A technology converting sludge sewage into energy through thermal hydrolysis developed by our com-

pany obtaine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ETV)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proved our top-notch technological expertise.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얻은 한 해였다. 올 7월에는 '하수슬러지 열가소분해 에너지화 기술'이 환경부로부터 기술 검증을 획득하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

다. 국내에서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재활용 기술로 기술검증을 따낸 것은 우리 회사가 유일하다. 그밖에도 신기술 3건, 국내특허 66건 등을 인증 받으며 R&D 분야의 위상을 높였다.



Our company was named to the 2017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World for eight consecutive years and selected as the Industry Leader in the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field for five years in a row. It is the first in the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for a company to become the Industry Leader for five consecutive years.

우리 회사가 올해 발표된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평가에서 8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된 동시에 5년 연속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업종 선도기업(Industry Leader)'으로 선정됐다. 특히 우리 회사는 세계 최초로 '업종 선도기업' 부문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도왔다.

창립 70주년 기념식 MAY



This year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Hyundai E&C in May. Since the establishment in 1947, our company has set a new milestone in Korean construction history. Starting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Pat-

ani-Narathiwat Highway in Thailand in 1966, Hyundai E&C has conducted about 800 projects in 59 countries. Hyundai E&C's operating profits surpassed one tr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in the industry.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준공식 AUG

Our compan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Talimarjan combined-cycle power plant based on our technological prowess. The newly constructed plant boasts the largest power production capacity in Uzbekistan. Hyundai E&C received the Talimarjan project in 2013 to build two units of the 450MW combined-cycle gas turbines.

우리 회사가 처음 진출한 우즈베키스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가 우리 회사의 기술력으로 준공된 것. 2013년 수주한 이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440km가량 떨어진 카슈카다리아(Kashkadarya)주 탈리마잔에 450MW급 2기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 주요 준공 현황

3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4월	문정7구역 지식산업센터 / 제주 신화역사공원 R2지구
6월	쿠웨이트 부비안 항만 / 진천-충청권도건설 1공구
7월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8월	인도 잠발강 사정교
9월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 제주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1단계
10월	메가스타 영종 / UAE 미르파 탐사복합화력 발전소
11월	아모레퍼시픽 사육 / 마리아 사우스 복합개발

우즈베크, 2조원 발전사업 공동수행 체결 NOV

The consortium of Hyundai E&C and Posco Daewoo signed an agreement to conduct a project valued at 1.8 billion dollars, or approximately two trillion won, to build a combined-cycle power plant in Uzbekistan on November 22. The 450MW combined-cycle power plant will be built in Navoiy, the center of the chemical industry in Uzbekistan.

우리 회사와 포스코대우 컨소시엄은 지난 11월 22일 총 18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복합화력발전 공동수행에 합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화학공업 중심 도시인 나보이 지역에서 45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공사다. 최근 우즈베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중부 지역의 전기 공급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JUN

This year, our company has won three prizes including the Quality Excellence Award (QEA), the Built Environment Leadership Award (BEL) and the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CEA) in the BCA Awards 2017 given by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of Singapore.



올해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2017'도 우리 회사가 제패했다. 우리 회사는 세계 건설사들의 각축장으로 불리는 BCA 건설대상에서 우수 건설사 부문(QEA: Quality Excellence Award) 대상을 비롯해 건설 리더십 부문(BEL: Built Environment Leadership Award) 최우수상, 우수 준공 현장 부문(CEA: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최우수상 등 3관왕을 달성했다.

반포주공 1단지 수주 SEP



Our company was selected as a contractor to carry out the Banpo Jugong Complex 1 project, reaffirming our top position in the area of urban maintenance. Construction costs are expected to be valued at about 2.6 trillion won, and the total project costs including relocation expenses and installment payment loans will reach 10 trillion won.

우리 회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반포주공 1단지의 시공권을 따내며 도시 정비 분야의 1인자도 올라섰다. 반포주공 1단지는 공사비만 약 2조6300억원에 사업비,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을 더해 전체 사업 규모가 10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 우리 회사는 반포주공 1단지 수주에 올 해 도시 정비 시장에서 19(수주액 총 4조 6468억원)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임직원 사랑나눔 기금 성금 전달 DEC

Our company made a 334-million-won donation collected voluntarily by our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to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This year's donation will be used for CSR activities designed to help those in need at home and abroad in nine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and Indonesia.

이웃 사랑 실천도 연말을 맞아 결실을 맺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1년간 자발적으로 모은 급여 끝낸 성금액 3억3400여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올해 마련된 성금은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총 9개국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올해 우리 회사는 건설사 최초로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 H-Contech을 출범하는 등 국내외 곳곳에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2017 주요 사회공헌 활동

1~2월	에피무브 18기(베트남) / 현대코카드림센터 4호점 완공
3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르비야 IT교실 완공
6월	미얀마 탈린타운실 초등학교 건립 완공
7월~8월	H-Contech 1기 해외봉사단 출범(인도네시아)
9월	경기용 멘토링 봉사단 4기 발대식
11월	이런 데어날 고등학교 IT교실 완공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제2캠퍼스 완공식 JAN

Happy news arrived from Vietnam at the start of this year. Our compan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campus of Hyundai-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Dream Center in Vietnam. Hyundai E&C refurbished the old building of Hanoi Construction College into the new center specialized in practicing piping and welding skills.

새해 시작과 함께 베트남에서 따스한 소식이 날아왔다.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베트남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인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제2캠퍼스'를 준공한 것. 제2캠퍼스는 지난해 준공한 제1캠퍼스의 후속 프로젝트로 하노이 건설전문 대학의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배관·용접'에 특화된 대학으로 재탄생했다. 1월 18일 열린 개소식에는 우리 회사 이석훈 연구개발본부장, 오명선 하노이 지사장을 비롯해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 해피무브 18기 대학생 봉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 '3관왕' FEB

In a survey conducted in February by the real estate information agency Doctor Apart, Hillstate was ranked no. 1 as the most desirable apartment brand fo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Hyundai E&C's premium housing brand took the first place in the apartment category of Korea's top 100 brand list released by Brandstock in October and also in the brand preference of a survey by Real Estate 114 in December.

힐스테이트가 국내 아파트 브랜드 전문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힐스테이트는 2월 15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진행한 올해 상반기 분량받고 싶은 아파트 조사에서 브랜드 1위를 기록했다. 힐스테이트는 지난해 10월 브랜드스타이 발표한 '100대 브랜드'에서 아파트 부문 1위, 12월 부동산 114의 설문조사에서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실제로 아트 컬러, 맞춤 평면, 친환경 교육 안심단지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HLeaders 협력사 정기총회 M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our company accelerated its efforts to carry out the vision of Hyundai Motor Group,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Hyundai E&C held the H-Leaders regular general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in Jeju Island for two days from March 3. The meeting, which marked its 6th anniversary this year, gave Hyundai E&C a chance to confirm the close cooperation with its excellent subcontractors.

연초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실천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했다. 우리 회사는 3월 3일부터 양일간 제주도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협력사 대표 155명과 정수현 사장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열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협력사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확인한 값진 시간이었다. 올 한 해 우리 회사는 ▶협력사 해외 현장 견학 ▶상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상생 협력의 토대를 다졌다.

지속가능 건설기업 5년 연속 '세계 1위' OCT



Our company was named to the 2017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World for eight consecutive years and selected as the Industry Leader in the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field for five years in a row. It is the first in the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for a company to become the Industry Leader for five consecutive years.

우리 회사가 올해 발표된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평가에서 8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된 동시에 5년 연속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업종 선도기업(Industry Leader)'으로 선정됐다. 특히 우리 회사는 세계 최초로 '업종 선도기업' 부문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도왔다.

대한민국에선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에서 열린다.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엔 90여 개국에서 5000여 명의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찾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인구 4만여 명의 강원도 평창에 2018년 2월 전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글=김지현<중앙일보> 스포츠 기자/사진=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스키협회

2018년, 세계의 시선이 평창으로 향한다

설상 종목은 평창에서 빙상 종목은 강릉에서

평창올림픽의 슬로건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 비전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이다. 1972년 삿포로 대회와 1998년 나가노 대회를 치른 일본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됐다. 2011년 올림픽 유치전 당시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와 경쟁하던 평창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아시아 국가에 겨울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포부를 내세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 취지에 맞게 평창올림픽은 이전 올림픽에선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많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15개 종목에 걸쳐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이 펼쳐진다. 이 중에서 스노보드 빅 에어(대형 점프대에서 공중 기술을 겨루는 경기)와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스타트(여러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트랙 평판에서 한꺼번에 달려 가장 빨리 들어오는 선수 가 우승) 등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인다. 설상 종목은 평창-정선 지역에서, 빙상 종목은 강릉 지역에서 나눠 열린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은 개·폐회식 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를 중심으로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역대 동계올림픽 가운데 가장 집약적으로 경기장이 배치됐다. 이미 경기장들은 모두 준공됐고, 지난해와 올해 초 일반인에게도 개방됐다.

개·폐회식이 열린 올림픽 플라자는 각종 대회 시설물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30일 준공된 올림픽 플라자는 이번 동계올림픽의 5대 목표인 '경제, 문화, 환경, 평화, 정보통신기술(ICT)'의 의미를 담아 오각형 형태로 만들어졌다. 연면적 6만㎡,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3만5000석의 가변석을 갖춘 올림픽 플라자는 동계올림픽 역대 최초 개·폐회식 행사만을 목적으로 지어졌다. 올림픽 후에는 공연장·기념관 등이 들어오고, 가변석은 철거된다. 중앙정부까지 나서 올림픽 후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ICT와 경강선... 평창 올림픽의 유산 기대

구닐라 린드베리(스웨덴) IOC 조정위원장은 "올림픽 관련 유산이 해당 국가 및 국민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는 ICT다. 선수·관계자뿐 아니라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을 찾는 일반인들이 ICT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한 한국의 수준을 접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5세대(5G) 통신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VR), 홀로그램 등 다양한 첨단 서비스가 선보여지고,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사물 간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올림픽 경기 중

게는 카메라 100대를 설치해 초고화질(UHD) 서비스로 이뤄지며, 한국어·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자동 통·번역하는 인공지능(AI) 콜센터도 운영된다.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교통 혁명'도 펼쳐진다. 서울(인천공항)과 강릉을 잇는 강원도 지역 최고속도 KTX 노선, 경강선이 대표적이다. 경강선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강원도 균형 발전을 위해 2008년 정부가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한 사업이다. 서울에서 서원주까지는 기존 철로를 개량했고, 서원주~강릉 구간(120.3km)의 복선 철로는 새로 만들었다. 2012년 5월 착공한 이 공사는 5년7개월이 걸려 12월 22일에 정식 개통했다. 기존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로 강릉까지 가면 5시간27분이 걸리던 게 KTX가 새로 개통되면서 1시간대 주파(서울역~진부역 1시간20분, 서울역~강릉역 1시간36분)가 가능해졌다.

평창 올림픽 기대할 스타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적인 겨울 스포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다.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스키 월드컵 여자 선수 최다 우승 기록(78회)을 보유한 린지 본(미국)과 알파인 스키 월드컵 회전 종목에서만 27차례 우승한 미케일라 시프린(미국)은 가장 눈에 띄는 스타다.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공중 기술을 겨루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선 한국계 10대 스타 클로이 김(미국)과 2006년과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딴 '진실' 손 화이트(미국)가 주목할 만하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세계 1위인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러시아)와 45세의 나이에 최고령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클라우디아 페흐슈타인(독일), 동계올림픽

1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장 열릴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3 한국의 사상 첫 동계올림픽 3연패를 꿈꾸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4 선전이 기대되는 스노보드 알파인의 이상호. 5 스킨레이팅 남자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윤성빈. 6 구닐라 린드베리 IOC 조정위원장(왼쪽)이 지난 11월 인천공항에서 진부역까지 운행하는 KTX를 시승했다. 7 개·폐회식 장소로 사용될 평창 올림픽 플라자. 8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



최다 금메달 보유자(8개)인 바이에슬론의 올레 에이 나르 비에른달렌(노르웨이)도 평창에서의 도전을 준비 중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은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인 금메달 8개를 따 종합 4위에 오르는 걸 목표로 잡았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3연패를 노리는 이상화(스포츠포토)가 가장 주목할 스타다. 아직 한국 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올림픽 3연패를 이룬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2010년 밴쿠버 대회와 2014년 소치 대회를 통해 '빙속 여제'의 존재감을 과시했던 이상화의 질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또 이번 올림픽에 신설된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스타트에선 이승훈(대한항공)과 김보름(강원도청)이 남녀 동반 금메달을 노린다. 한국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에선 심석희(한국체대)·최민정(연세대) 등 여자 선수들의 선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직 동계올림픽에서 한 개의 메달도 없던 설상 종목에서도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썰매에 앉드려 슬라이딩 얼음 트랙을 내려오는 스킨레이팅의 윤성빈(강원도청)이 가장 강력한 메달 후보다. 그는 올 시즌 열린 2·3·4차 월드컵에서 연속 금메달을 따면서 통산 월드컵 50회 우승한 '스켈레톤의 황제'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를 넘어 스킨레이팅 남자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있다. 2015~2016 시즌 월드컵 종합 우승을 거뒀던 봅슬레이 2인승의 원용준(강원도청)-서영우(경기연맹)도 메달을 기대할 후보다. 스키 종목에서도 지난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에 올랐던 스노보드 알파인의 이상호(한국체대)가 정상권을 노리고 있다. 또 사상 처음 동계올림픽에 나서는 남녀 아이스하키 팀과 메달 기적을 꿈꾸는 남녀 컬링팀의 선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북한의 참가 여부도 관심사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에서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평화 올림픽'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말 독일에서 열린 국제대회 피겨 페어 종목에서 염대옥·김주식 조가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따지만 국제빙상연맹(ISU)에 출전 의사를 밝히지 않아 참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IOC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둘러보기 위해 출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다.

평창 올림픽을 즐기려면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는 시작됐다. 입장권은 온라인(<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 또는 전국 각지의 오프라인 판매소(서울·강릉시청, 강원도청, 인천·김포공항, 전국 19개 KTX역사 관광안내소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대

회가 개막되면 경기장 매표소에서 현장 판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매자의 이름, 전화번호와 결제 수단(비자카드 또는 현금)을 저장하면 만 14세 이상 국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2만원부터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됐으며, 한 장당 평균 가격은 15만2000원이다. 이는 밴쿠버 18만7000원(168달러), 소치 22만4000원(201달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IOC 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1명이 구매할 수 있는 입장권은 50장으로 제한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인기 경기는 1인당 최대 4장, 이외 경기는 최대 8장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인기 경기로는 개회식, 폐회식,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남자 1만m 제외), 아이스하키(남자 4강 이상, 여자 결승), 컬링(결승), 스키점프(결승)가 지정됐다.

입장권 소지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매일 문화 행사가 열리는 평창 올림픽 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를 관람할 수 있다. 또 KTX 티켓 구입 할인 및 조기 예매 혜택도 제공된다. 자가용을 이용해 개최지로 이동하는 경우,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에 면제되고 올림픽 개최 도시 나들목 인근 환승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인이 경기장에 가려면 셔틀버스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 측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차량 외에는 절대 경기장 주차장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반 관중들은 꼭 인지해서 반드시 환승주차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중객은 환승주차장과 셔틀버스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자가용으로 강원도까지 온 뒤 대관령(평창 지역)과 봉평(보광 지역), 정선과 정선아라리공원(정선 지역), 북강릉과 강릉·서강릉(이상 강릉 지역) 등 일곱 군데의 환승주차장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로 갈아타서 경기장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내년 1월 출시되는 모바일 앱 '고 평창'을 이용하면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최적의 경로 정보와 환승주차장 상태, 경기장 셔틀버스 시간표 등을 검색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요	
대회 일정	2018년 2월 9~25일
장소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참가 규모	90여 개국, 5000여 명
슬로건	하나된 열정 (Passion, Connected.)
비전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종목	15개 종목(알파인 스키·스노보드·프리스타일 스키·스키점프·크로스컨트리 스키·바이에슬론·노르딕복합·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컬링·아이스하키·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피겨스케이팅)
금메달 개수	102개
경기장 수	12개
마스코트	수호랑(백호·'수호'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참가자, 관중을 보호한다는 의미, '랑'은 '호랑이'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선아리랑'의 '랑'에서 따온 것)

가족 모두가 TV 앞에 둘러앉아 드라마를 시청하는 모습은 이제 정말 TV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사람들은 TV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들이 즐길 신개념의 방송 콘텐츠를 찾아 즐기고 있다. 요즘은 대형 콘텐츠 공급자의 획일적 콘텐츠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시대다. 글=최덕수 <앰스토리> 기자

방송의 한계를 넘다, 1인 미디어 열풍

1인 미디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

대도서관, 영국남자 조쉬, 밴쯔, 지상파에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이들은 유명세를 얻은 인기인들이지만, 엄밀히 말해 연예인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이들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용어는 연예인이거나 방송인이 아닌 BJ(인터넷 방송인, Broadcast Jockey)다. BJ는 지상파, 매스미디어가 아닌 인터넷 플랫폼의 방송 콘텐츠로 유명한 방송인을 뜻하는 신조어다. 유명 BJ들을 포함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는 이들을 세간에서는 통칭해 '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가 콘텐츠 혹은 그들이 조성한 산업 자체를 '인터넷 방송' '1인 미디어'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 명 혹은 소수의 크리에이터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이것을 많은 이들이 시청하며 즐거움을 얻는 요즘이다. 단순히 그저 방송을 송출할 뿐인 매스미디어의 단방향 콘텐츠는 이제 인터넷·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TV가 없어도, 라디오가 없어도 언제든 우리는 방송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DJ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싸이월드·미니홈피·블로그 등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 내던 네티즌들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와 모습을 담은 동영상 형태의 미디어를 생산해 내고 또 이를 송출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지금에 이르렀는지

1인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는 방송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다른 어떤

디바이스보다도 고품질의 동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단말기다. 별도의 전문적 장비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진 점은 동영상 콘텐츠 보급 가속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자연스레 이런 동영상을 공유하고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UCC의 시대를 지나며 기술적 발전을 이룬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등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개인이 만든 콘텐츠들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아프리카TV를 위시한 인터넷 방송 수익 사업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이래 1인 미디어 시청자, 소비자는 급속도로 늘었다. 사용자가 몰린

플랫폼은 경제를 창출한다. 플랫폼의 발전과 콘텐츠의 증가는 이용자들의 증가로 이어졌고, 1차적으로는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증가했으며 부수적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상품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다. '1인 미디어'라는 말은 소수 혹은 개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말이며, 자연스레 시청자로 하여금 영세함, 빈곤함을 떠올리게 만든다. 하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달리 현재 고정적인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들은 광고 매출과 후원금으로 유명 연예인 부럽지 않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1인 크리에이터로 나서는 유명인들

1인 크리에이터가 유명세를 얻어 매스미디어로 진출하는 것은 이제는 흔한 사례다.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영국남자 조쉬의 유튜브 방송의 경우, 지난 10월 JTBC2의 TV 정규 편성 프로그램으로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인 미디어를 시청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또 거대한 수익이 창출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매스미디어에서 활약하던 연예인, 유명인들이 1인 크리에이터로 나서고 있는 역진출 상황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유명 개그맨이었던 김기수는 현재 제

1부터 크리에이터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개그맨 김기수. 2 유튜브 먹방 스타 밴쯔. 3 김생민, 송은이 등 팟캐스트, 트위치, 유튜브 등으로 진출하는 연예인이 점차 늘고 있다. 4 JTBC2의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된 '영국남자'.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KBS의 개그콘서트에서 '댄서 캅'으로 유명하던 당시보다 오히려 현재가 더 '핫'하다고 평가될 정도다. 그가 다시금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 뷰티 콘텐츠 덕분이었다. 연예인 데뷔 이래 처음 전성기를 맞은 방송인 김생민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팟캐스트를 통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 방송이 다시 매스미디어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1인 미디어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서구권에서는 유튜브 방송으로 큰 수익을 올린 사례가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유튜브 방송까지 나와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본의 먹방 유튜버인 '기노시타 유우카'는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우려들

한국의 10대, 20대가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앱은 카카오톡도, 게임도 아닌 '유튜브'로 집계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9명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이들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매일 유튜브를 시청하는 응답자가 TV를 보는 응답자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도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로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이룰 것이 자명하다. 방송 콘텐츠의 중심은 점차 매스미디어에서 개인화, 다양화된 인터넷 콘텐츠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인터넷 방송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의 방송 콘텐츠 소비욕을 채워주며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때로는 매스미디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의 순기능도 하곤 한다. 하지만 방송 시청횟수가 곧 매출, 돈으로 연결되는 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끌기 위해 선정적 저질 콘텐츠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통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으로 최근 1년 동안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보았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지금 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또 사랑받기 위해 선정적 콘텐츠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각양각색의 유튜버도 누가 있을까?



1 '영포자'도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날라리데이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법이나 알아두면 좋은 영어문장 포인트를 딱 집어준다. 2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방송인 이사배. 여자 아이돌부터 남자 배우까지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그녀를 사람들은 '갓사배'라 부른다. 3 도티는 현재 유튜브에서 '도티&잠뜰TV' 채널을 운영 중인 게임 크리에이터. '도티TV'의 1년 조회수는 4억693만회에 육박한다. 4 71세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 낮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썸밭집을 운영하는데 밤이면 '박막례 할머니'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 변신한다.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지만 늘 기대와 설렘을 감출 수 없다. 올해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색깔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까. 아이나 부모님, 또는 부부끼리 보내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여기 다섯 곳이라면 반짝반짝 아름답고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 글= 최현주 <AB-ROAD> 편집장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6
2017/12/22/Friday



가족과 함께라서 더욱 좋다!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핫스팟 5

1 도심에서 느끼는 자유 워커힐 캠핑인더시티

극심한 교통체증과 혹시 모를 기상 악화, 좋자고 나선 길이 오히려 피곤하고 괴로운 여정이 될지 몰라 망설여진다면 서울 워커힐의 캠핑인더시티를 추천한다. 서울이지만 혼잡하지 않고, 캠핑이지만 거주장소처럼 편안한 자유롭고 편안한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 워커힐 캠핑인더시티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운영하는 도심형 글램핑으로 한강변, 울창한 숲속에 마련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 숲으로 둘러싸인 글램핑장에 동마다 그림이 다른 인디언 텐트가 마련돼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식기와 조리 도구, 커피머신 등이 있다. 준비된 그릴에 고기와 새우, 소시지 등을 구워 먹는 동안 해물우동과 함께 케이크에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디저트도 나온다. 텐트 안에 빔프로젝터가 구비돼 있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해가 저물면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소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기간 2017년 12월 31일 전화 02-455-5000

2 아찔하게 황홀한 크리스마스 서울스카이(SeoulSky)

높이 555m, 123층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서울 시내를 화려하게 수놓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 최고층부인 117~123층에 자리 잡은 서울스카이는 높이 500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전망대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와 역동적인 현대 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수도권 서울을 360도 뷰를 통해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천장과 벽체 3면에 모니터 화면이 설치돼 있어 VR의 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카يش어를 타면 지하 1층에서 118층까지 단 1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가장 높은 유리바다 전망대'로 선정된 스카이데크에서 하늘을 나는 듯 짜릿한 기분도 느낄 수 있다. 서울스카이의 하이라이트이자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123라운지'다. 창밖으로 별처럼 쏟아지는 불빛을 보며 달콤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지하 1층
시간 오전 9시~오후 11시 문의 1661-2000

3 눈사람 천국, 가장 재미있는 겨울나라 남이섬

아이와 함께 신바람 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면 눈사람 축제가 한창인 남이섬으로 향할 것. 얼어붙은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쇄빙선부터 신비로운 얼음장벽 포토존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넘쳐난다. 남이나루를 지키는 파

수꾼이자 동화나라 남이섬의 상징물인 '인어공주상' 옆에는 5m가 넘는 대형 풍선 눈사람이 자리하고, 남이나루 광장은 트리 조형물 위로 화려한 조명등이 하늘을 뒤덮었다. 중앙자나무길 옆 백풍밀원 일대는 '눈사람 마을(Snowman Village)'이 들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이라이트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눈사람 마을. 눈썰매장, 튜브 슬라이, 컬링, 팽이치기, 아이스 두더지굴, 눈사람 포토존, 얼음 미로, 얼음 미끄럼틀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소원나무 만들기, 나만의 눈사람 만들기, 눈사람 양초 만들기, 눈사람 염서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욱 잊지 못할 체험 프로그램도 푸짐하니 놓치지 말자.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1024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031-580-8114

4 책과커피가있는, 따뜻하고 향긋한 크리스마스 아난티코브(Ananti Cove)

아난티코브는 아난티타운, 이터널저니, 힐튼부산 등이 포함된 대규모 여반리조트 타운으로 부산의 동쪽 끝, 구불구불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가장 해운로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속

박과 산책, 미식과 레저,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휴양지다. 그중 가장 각광받는 곳은 '이터널저니(Eternal Journey)'다. 1855㎡(500평) 규모의 대형 서점으로 해외 원서와 한정판 도서, 디자이너 북 등을 포함해 2만여 권의 책을 만날 수 있다. 넉넉하고 아늑한 공간에 예술·사회·문화·여행 등의 책들이 색별로 보기 좋게 정리돼 있어 찾기 쉽고 군데군데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돼 프라이빗한 서재에 온 듯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 여유롭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 아난티타운에 자리한 '산 에우스타키오 일 카페(Sant Eustachio il Caffè)'도 꼭 들러볼 것. 로마 3대 카페 중 하나로 우리나라 1호점이다. 1938년에 문을 연 산 에우스타키오 일 카페는 로마 현지인들도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장작불을 피워 원두를 로스팅하는 등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의 인테리어에 진한 커피 한 잔, 로맨틱한 감성이 그윽한 향기를 더해준다.

주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1 이터널저니
시간 월~금요일 낮 12시~오후 9시, 토요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 문의 051-604-7222

5 불빛속을 거니는 로맨틱 로드 송도 센트럴파크

올해 크리스마스는 꼭 해외에서 보내리라 다짐했지만 아쉽게도 비행기 티켓을 손에 넣지 못했다면 억울해하지 말고 송도로 향하자. 화려한 네온사인 과 부드럽게 흐르는 수로, 캐럴을 흥얼거리며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전혀 부럽지 않은 코리아 센트럴파크가 이곳에 있다. 센트럴파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으로 4km 거리에 떨어진 해수처리장에서 바다물을 취수해 1급수 상태를 유지, 송어와 우럭, 꽃게, 망둥어 등이 서식할 정도로 맑은 물을 자랑한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약 41만㎡로, 해수로 양옆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야경을 만날 수 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센트럴파크를 조망하고 싶다면 송도의 랜드마크인 G타워로 향할 것. 33층에 자리한 전망대에 오르면 영종도와 인천대교 전망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한옥마을 등이 한눈에 보인다. 부부끼리 또는 아이들과 손을 꼭 잡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걸으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뼘 더 자랄 것이다.

주소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4
문의 032-777-1339

1 서울스카이 Seoul Sky,
2,3 아난티코브 Ananti Cove,
4,5 남이섬,
6 워커힐 캠핑인더시티,
7 송도 센트럴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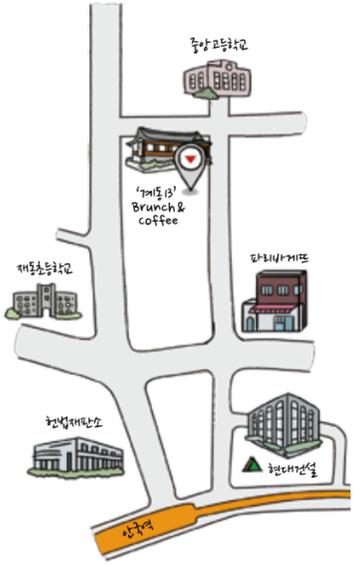


1 '계동 13' Brunch & Coffee 외관.
2 오렌지와 얼그레이티, 우유 거품이 색다른 조합을 이룬 '오렌지 밀크티'. 3 '계동 13' 내부에 위치한 전통 한옥 콘셉트의 테라스. 4 플레인 허니 브레드. 5 양송이 수프. 6 버섯크림베이컨 파니니.

면서 부드럽다. 얼 그레이티를 우리는 시 간과 농도를 각각 달리하며 여러 번 테스트해 가장 맛있는 조합으로 만들어진 신메뉴라고 주인공은 귀땀했다.

이곳 주인공은 초등학교 때인 1974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계동에 터를 잡은 계동 토박이다. 그녀는 가게 건물 바로 옆 공용공간을 전통 기와로 인테리어한 만큼 계동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남다르다. 가게를 찾는 고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주인공의 포부대로 테이블 사이가 넓찍하게 띄어져 있어 옆자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정성을 다하자'라는 대표의 신념대로 신선한 재료와 기본에 충실한 조리방법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는 느낌이 든다. 단독 방 형태로 된 미팅룸에서는 빔프로젝터 사용이 가능해 회의 장소로도 적합하다. 테이블 36좌석, 미팅룸 1개(12좌석).
클=김승희/사진=이슬기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한 파니니'를 즐기자! 계동 13 Brunch & Coffee

계동 본사에서 중앙고등학교로 가는 골목은 아기자기한 공방과 예쁜 카페들이 즐비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다. 중앙고등학교에 거의 다다를 무렵, 모던하고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계동 13' 카페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난달 26일 오픈한 이곳 내부에 들어서자 큰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전통 한옥 콘셉트의 테라스가 운치를 더한다. 고즈넉한 한옥의 따뜻한 감성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뤄 아늑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계동 13'의 대표 메뉴는 '파니니'로 세 가지 종류 중 '버섯크림베이컨 파니니'가 가장 인기다. 전문 베이커리숍에서 주문·제작한 바질을 넣은 빵 사이에 버섯·베이컨·생크림을 듬뿍 넣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함께 나오는 샐러드를 곁들이면 그 맛이 배가된다. '계동 13'에서는 '옛날 떡볶이'도 즐길 수 있다. 파니니나 와플 등이 자칫 느끼할 수 있다는 주인공의 배려로 탄생한

메뉴로, 매콤하면 서도 군더더기 없는 추억의 국물 떡볶이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

'계동 13'에서는 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 외에도 자몽티, 레몬티, 오렌지 밀크티 등 수제 과일차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오렌지 밀크티는 직접 건조기에 말린 오렌지에 유기농 얼그레이티와 풍성한 우유 거품이 어우러져 상큼하



계동 13 Brunch & Coffee
주소 서울 종로구 계동 13번지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8시
문의 02-763-0013

현대건설 임직원들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제시시
파니니메뉴 1000원 할인
2018년 2월 28일까지

셀프 체크리스트

어느새 2017년 끝자락에 와 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은 잘 실행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년과 다름없는 똑같은 한 해였는지 되돌아보자. 반성보다 성장에 묘약이 또 있을까. 아래 연말 평가 점수로 올 한 해를 정리해보자. 참고서적= 고종문 저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공의 기술>

올 한 해, 나는 몇 점일까?

직장생활 만족도

내 직장이 나의 재능과 강점에 잘 맞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맡은 업무를 하면서 대체로 즐거웠다.	⑤ ④ ③ ② ①
직장 혹은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했다.	⑤ ④ ③ ② ①
업무에 따른 보상에 만족스러웠다.	⑤ ④ ③ ② ①
능력을 인정받았거나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⑤ ④ ③ ② ①

인간관계 성취도

배우자(연인)와 함께 1회 이상 여행을 즐겼다.	⑤ ④ ③ ② ①
명절이나 생신 말고도 부모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진 적이 1회 이상이다.	⑤ ④ ③ ② ①
지난해에 비해 회사 안팎의 인간관계가 더 넓어졌다.	⑤ ④ ③ ② ①
상사로부터 업무적인 인간관계로 80점 이상은 받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후배나 동료로부터 업무적인 인간관계로 80점 이상은 받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점수 기준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② 그렇지 않다 ① 거의 그렇지 않다

건강관리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별 이상이 없었다.	⑤ ④ ③ ② ①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셨다.	⑤ ④ ③ ② ①
술자리에서 흐트러지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 일이 없다.	⑤ ④ ③ ② 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피했다면 끊거나 줄였다.	⑤ ④ ③ ② ①
주 2-3회, 30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	⑤ ④ ③ ② ①

스트레스 및 비전 관리

올해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⑤ ④ ③ ② ①
취미 생활을 계속해 왔거나 새로 시작했다.	⑤ ④ ③ ② ①
영화, 연극, 콘서트 등의 문화생활을 연 6회 이상 즐겼다.	⑤ ④ ③ ② ①
화가 날 때 주변에 내색하지 않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지난해보다 내 인생의 비전에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⑤ ④ ③ ② ①

세계적인 기업 GE는 직원들을 교육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답하며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한다. 회사에서의 내 모습과 비교하며 자문자답해 보자.

GE의 자기성찰 체크리스트

- 나는 열정적인가?
- 나는 투명한가?
- 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 상대를 배려하고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가?
- 비전과 3년, 5년, 10년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가?
-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 닳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가?
-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A This picture is taken inside the subway. The inside of the subway was painted partly in light mint and the floor is painted in redish brown. Adboards are attached in line on both sides of the top of the subway car. Some handles are hanging down from the top. The door to the next subway car is open. It looks like winter. A woman in the middle is standing and leaning against the wall.

Opinion Question 유형

Drones are becoming popular, smaller and cheaper these days. They are even made as toys. There are many drone contests around the world. However some people don't like it when the drones are hovering above their heads. Are drones good or bad for our future? Do you agree or disagree?

Drones have negatively affected our lives today. How do you know well a student 17 years of age and love drones but what has it done I think it's made me lazy because of the video recording abilities I now can fly around the neighborhood to the park and not leave the house at all its that crazy would you imagine being a teenager having a video recording drone and nothing else to do now picture how Amazon is using drones to deliver its faster but is it more convenient?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90점 이상 자기성찰 능력이 매우 우수한 편.
60-90점 미만 자기성찰 능력이 우수한 편.
60점 미만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잣대에 너무 자신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이 필요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12월. 평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상대에게 연말의 기운을 빌려 '감사카드'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진심이 담긴 몇 글자면 충분하다. 글·정리=박현희/사진=이슬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6
2017/12/22/Friday

사랑의 마음 담은 따스한 카드 한장



외주실 기술용역외주팀

To 기술용역 담당 직원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저희 팀과 함께 노력했던 사내 기술용역 담당 직원 여러분에게 <사보신문>의 지면을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붉은 담의 해'로 시작한 2017년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에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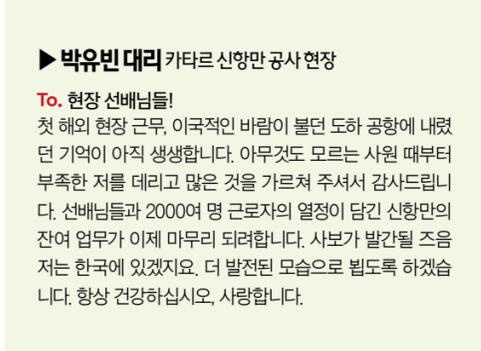
◀ 이재중 사원 해외마케팅2실

To.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올해도 고마워요.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성장한 덕분에 올해 '현대건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아들로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만 놓고 참한 아내 만나 결혼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박귀성 과장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랫16 공사 현장

To. 현장 식구들
본사 복귀를 앞두고 현장 식구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됐네요. 첫 해외 현장이었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식구들 덕분이었습니다. 탈권위적인 소장님, 입사 동기 공무파트장/MEP공구장, 최연소 공사부장, 똑똑한 공무대리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내년에 무재해로 안전 준공하시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요. Selamat taun baru(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유빈 대리 카타르 신항만 공사 현장

To. 현장 선배님들!
첫 해외 현장 근무, 이국적인 바람이 불던 도하 공항에 내렸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원 때부터 부족한 저를 데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과 2000여 명 근로자의 열정이 담긴 신항만의 잔여 업무가 이제 마무리 되려합니다. 사보가 발간될 즈음 저는 한국에 있겠지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 김광석 차장 전력신성장실

To. 사랑하는 아내, 지영
어리고 연약하게만 보였던 그대, 지영. 어느덧 철없는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네. 종일 아이들 돌보고, 가정일 하고, 늦게 오는 남편 저녁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겪어 보니 그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더라. 힘든 병원 생활 잘 견뎌줘서 정말 고마워. 철든 남자로 변신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다. 패유를 기원하며, 우리 앞으로 밝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전주형 대리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현장

To. 현장 직원 여러분
이름조차 낯선 베네수엘라에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습니다. 첫 해외생활이라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현장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 박정욱 차장 힐스테이트 거제 현장

To. 멋진 현장 식구들
직장인에게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만큼 축복이 있을까요? 힐스테이트 거제 현장 직원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즐겁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을 수 있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2018년도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행복을 전합니다.



▼ 김혜경 대리 플랜트설계지원실

To. 늘 응원해주는 가족에게
어느덧 12월, 2017년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올해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보람찬 해였어요. 다른 해들과 마찬가지로 바쁘게 지냈지만, 올해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아껴왔던 일들을 해낸 보람찬 해였어요. 가족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행복한 해를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요. 사랑해요.



김한울 대리 건축기술지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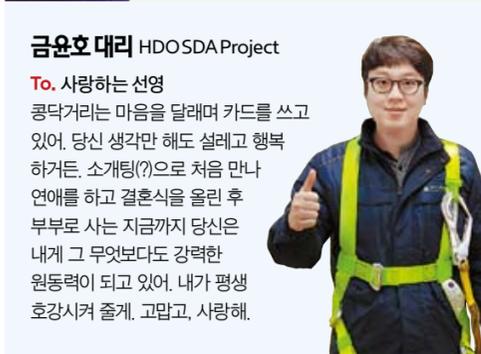
To. 정신적 지주, 남편
결혼 후 참 많은 일이 있었는지? 서로가 좀 더 희생해야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아. 매일 아침 어린이집 등원부터 하원까지 육아와 집안일 등 많은 부분을 함께해줘서 고마워. 나를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끌어줘서 고마워. 정신적 지주이자 사랑하는 남편,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겁고 신명나게 살자!



◀ 김규진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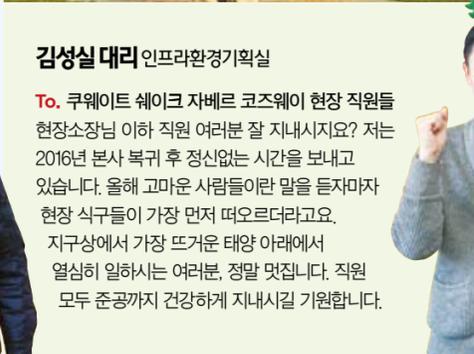
사우디 쿠라야 IPP 연계 2차 송전선 공사 현장

To.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한국의 한파를 따라 이곳 중동에도 찬 기운이 엄습합니다. 이곳 날씨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영상 53도까지 치달다가 5도로 뚝 떨어졌거든요. 중동의 겨울바람을 맞으며 우리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울겨울엔 우리 집 마스크트인 흰둥이 푸미와 아름다운 아내,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남아섬에 가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



김윤호 대리 HDOSDA Project

To. 사랑하는 선영
콩닥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카드를 쓰고 있어. 당신 생각만 해도 설레고 행복하거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로 사는 지금까지 당신은 내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 내가 평생 호감시켜 줄게. 고맙고, 사랑해.



김성실 대리 인프라환경기획실

To. 쿠웨이트 웨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 직원들
현장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잘 지내시지요? 저는 2016년 본사 복귀 후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고마운 사람들이란 말을 듣자마자 현장 식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정말 멋집니다. 직원 모두 준공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 정평범 대리 제주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현장

To. 제주 최고 에이스 분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한 해 열심히 함께 일한 제주신화역사 A지구 테마파크 현장 직원 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테마파크 현장이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직원들이 톡톡 뚫린 덕분에 준공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제주 최고 에이스 현장답습니다!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